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尹 거짓·궤변에 참담·분노

●대통령 담화에 속도 붙는 ‘탄핵열차’

오월단체 “후안무치”·광주비상행동 “선전포고” 맹비난
세계 YMCA ‘한국과 연대’...중·고생의회도 탄핵 촉구

▶관련기사 2·3·4·7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은 헌정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궤변’으로 일관하면서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분노가 또 다시 폭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 자신과 부인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에 대해 한 마디 사과 없이 야당 탄압 하며 30분에 가까운 담화가 끝나자 시·도민들은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하고 있느냐”며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

12일 오전 윤 대통령의 4번째 대국민 담화가 끝난 직후 오월 단체는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월 공법 3단체(5·18민주화운동 부상자·공포자회, 5·18민주유공자유총회)와 5·18기념재단은 입장문을 통해 “범죄자 윤석열이 발표한 대국민 담화는 국민의 상식과 정의를 철저히 무시하며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9일간 연구한 변명으로 가득 찼다”며 “계엄 실패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군사력을 동원한 계엄을 통해 국가를 대헌란에 빠뜨린 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하지 않다”며 “코너에 몰린 쥐가 최악의 발악을 하듯,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하려는 윤석열의 행보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광주·전남 13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도 “무너져 내린 권력을 지키려는 마지막 발악이었고 ‘국민에 대한 전쟁’ 선포였다”며 “경찰·공수처·국방부 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지금 당장 사회 혼란을 조장하고 있는 그를 체포·구속하고 국회는 당장 탄핵에 나서야 한다”고 분개했다.

또 비상행동은 “경찰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친위부대인 극우 친위세력의 준동을 철저히 봉쇄해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 내란 세력에 대한 수사, 처벌 과정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한말호남의병기념사업회·(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역위·안중근 의사기념사업회 광주전남지부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국민들이 그렇게 만만한가. 저런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는 것이 참담하다”며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이



광주 고교생 ‘尹 퇴진’ 시국선언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국민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12일 오후 광주시교육청 1층에서 광주 고등학교 학생회 학생들이 탄핵 촉구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라고 비난했다.

단체들은 “(윤 대통령은)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그 책임을 지면 된다”며 “미친 정권에는 철퇴가 답”이라고 논평했다.

광주 YMCA는 이날 “세계 YMCA 연맹과 아시아태평양 YMCA 연맹에서 한국 국민들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모습에 감명 받았다며 연대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보내 왔다”고 밝혔다.

해의 연맹은 “격동의 시기에 한국 YMCA 전국연맹과 대한민국 모든 YMCA

A 운동의 형제자매들과 굳건히 연대한다”며 “우리는 한국 YMCA가 섬기는 지역사회 및 청년들과 뜻을 함께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변재훈 전남대학교민주동우회 집행위원장은 “며칠 간 집거한 뒤 나온 대국민담화는 ‘대국민 선전포고’로 끝났다”며 “어떤 법에도 국회를 장악하라는 내용이 없는 데도 내란 범죄를 정당화하고 있다. 특히 실체와 근거도 없는 북한 편들기, 범죄 세력의 국정 장악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지역 학생 7천18명이 포함된 중·고등학생의회는 이날 오후 5시에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시국선언을 낭독하고 ‘윤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촉구했다.

이와 별도로 5·18민주화운동의 발원지인 전남대학교의 교수회, 총학생회 등 7개 단체는 같은 날 민주마루 앞 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촉구 궤기대회를 열어 “위헌적 비상계엄과 내란을 획책한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광주분부는 45년 전 이날 전두환이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에 빗대 “오늘 윤석열은 전두환으로 빙의했느냐”며 “분노·충격에 빠진 국민에 대한 사과와 헌정 유리에 대한 참회가 전혀 없다. 모든 권한을 박탈하고 내란 수괴를 즉각 체포 구속해 국민으로부터 영원히 분리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광주 진보연대는 “담화는 왜 하루빨리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 줘야 하며 ‘일말의 틈도 쥐어안되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인재영·주성학 기자

尹 “탄핵하든 수사하든 맞설 것”...퇴진 거부

●대통령, 비상계엄 관련 4번째 담화

사실상 국민 상대 ‘선전포고’ 비판 쏟아져

국회의장 “즉시 여야 대표회담 개최 제안”

80%에 가까운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내란 수괴’로 지목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이날 담화는 사실상 국민들에게 선전포고한 것이라 비판이 나온다. 또한 ‘법적, 정치적 책

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나 이미 하루 전 진행된 국가수사본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실제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2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8%로 나타났다. 반대는 20%, ‘모름’ 또는 응답하지 않은 이들은 2%였다.

보수 유권자 사이에서도 43% 탄핵

에 찬성했다. 진보 지지자는 98%, 중도 유권자도 88%가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과 이후 전개되고 있는 내란 상황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은 도외시 한 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라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체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

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협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참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우 의장은 “국회에 경고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민주주의 헌정질서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해도 된다는 것이고, 국민 기본권을 정치적 목적의 수단으로 삼아도 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오늘 대통령 담화가 또 다른 오관이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즉시 여야 대표회담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野6당, 두 번째 ‘尹탄핵안’ 제출

오늘 본회의의 보고...내일 오후 5시 표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12일 오후 5시28분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야 6당은 13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14일 이를 표결할 계획이다.

야당은 지난 4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탄핵안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그러나 첫 번째 표결과 달리 14일 표결에서는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될 가

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물론, 조정태·안철수·김상욱·김예지·김재섭·한자이·진종오 의원 등 현역 의원 7명이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여당 이탈표 8표 중 단 한 표만이 남게 됐다. /김진수 기자

희망2025나눔캠페인
기부로 나눔 가치있게
광주전남을 가치있게!
성금접수 계획
광주 사랑의 열매 : 053-107-999990 (광주은행) / 광주시회비지킴이공동체
전남 사랑의 열매 : 301-4000-3000-01 (농협은행) / 전라남도공동체모임회

제12기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
아카데미**

당신의 삶을 다시 디자인 할 기회!
Redesign your life!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제12기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요강

- 지원자격** 기업경영진 및 관리자, 지자체장 및 의원, 기관단체장, 법조·의료·교육·문화·예술계 전문가 등
- 모집인원** 00명 내외
- 교육기간** 2025년 3월 25일(화) ~ 2025년 12월 중강(연 16회)
- 강의시간** 격주 화요일 오후(7시~8시30분, 6시부터 식사)
- 강의장소**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 전형방법**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세금계산서 요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수강료 : 380만원(부가세 포함)
 - 입금계좌 : 광주은행 (016-107-391900 : (주)광주매스컴)
 - 접수마감일 : 2025년 3월 14일(금)
 - 문의 :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 (062-650-2079)
 -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

■ 주요강사진 (예정)

관수홍 소장 리얼경제연구소	김계훈 교수 전남대학교	권대중 교수 부동산대학원	문달주 교수 ASSIST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재희 상임 만족문화연구소 연구원	오정혜 국악인	이승재 영희문화	임진모 음악문화
최윤희 대표 2M커뮤니케이션	한다혜 박사 서울대학교 소비자학자		